

# 보도해명자료

KDI 홍보팀 958-4030 press@kdi.re.kr

2013. 2. 19.

## 제 목: TV조선 2월 18일, 「현오석 내정자, 미분양분 구입 맞나?」 제하 보도 관련 해명

TV조선은 2.18(월) “현오석 내정자, 미분양분 구입 맞나?” 제하의 보도에서 내정자는 2001년 파크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나, 내정자가 분양받은 평형의 경쟁률은 2대 1이었으며, 계약포기 물량은 3월 22일 이후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하나 내정자는 3월 21일 계약을 체결하여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관련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분양 안내서에 따르면
  - 26층 이상의 이른바 로얄층은 공개청약과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하고, 25층 이하의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음.
- 현 내정자는 당초 공개청약 물량인 26층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였으나 추첨 결과 당첨되지 않아(2001.3.19)
  - 선착순 미분양 물량인 6층 아파트를 3.21일 계약한 것으로서 이는 특혜분양과는 전혀 무관함.
- 보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약포기 물량은 3.22일\* 이후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26층 이상의 아파트에만 해당함.

\* 26층 이상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3.19~3.22일까지였음

※문의: 장혁순 KDI 대외협력실장